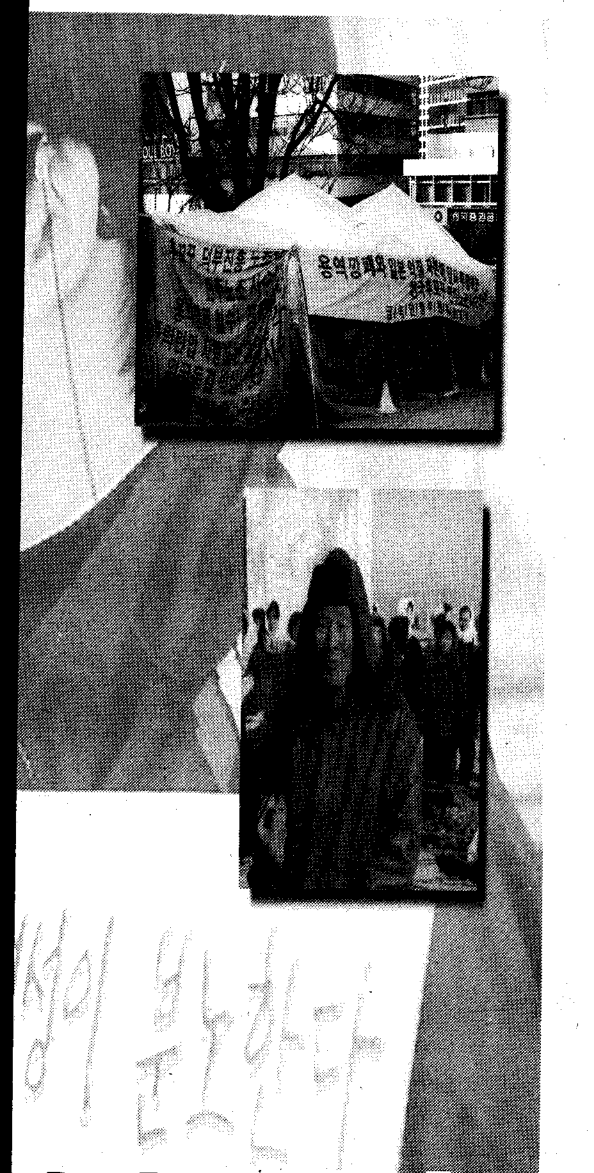

□전국을 휩쓴 북녘동포돕기

분단의 벽을 허문 뜨거운 동포애

민간단체, 북한동포돕기에 헌신적…정부, 민간단체 흠집내기

'민족의 피'는 근 50여 년 간 터부시되었던 사상의 벽을 허물기에 충분했다.

굶주림에 휑한 북한 어린이의 눈망울이 전국민의 눈시울을 붉혔으며, 95년과 96년에 연이은 대규모 홍수에다 올해는 극심한 가뭄까지 할퀴고 간 북녘의 굶주림은 실로 처참했다.

마땅히 겨레의 고통을 분담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다. 어린아이들조차도 코흘린 돈을 모금함에 넣기를 주저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일들이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졌다.

이렇게 전 국민적인 성원이 한데 모아진 것은 적극적인 언론의 보도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80년대만 하더라도 감히 북한을 돕는다는 것을 어디 상상이나 할 수 있었는가.

하지만 북한을 돕는 것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아닌 민간단체인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에서 주관을 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 일말의 아쉬움이 남을 뿐이다.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태도는 어떠했는가. 옥수수죽 한 사발이 아쉬운 한 겨레에게 적선은 못할 망정 쪽박을 깬다는 지탄을 면치 못하였다. 즉각적인 북한 식량 지원 촉구에 미지근한 태도를 취했을 뿐 아니라 의도적인 판 깨기에 나서는데 여념이 없었다. '북한동포돕기 문화 공연'을 경찰력을 동원하여 막은 일이나, '전국연합에서 모은 성금을 유용하고 있으니 안기부에서 수사를 하겠다'고 나서는 일이 대표적인 일이다. 또한 정부에서는 '황장엽씨의 망명'과는 대조적으로 '베트남 지뢰밭 실종 북한 식량 난민'에 대한 외면은 또한 대표적인 사건이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동포돕기의 열기는 식지 않았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96년 여름방학부터 회기동을 중심으로 모금활동을 벌였으며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 97년도에는 총학생회 주최로 '북녘동포돕기'를 확대 시행했다.

29대 총학생회 정책국장 남현우군은 "학생회에서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보여줌으로서 후속 작업을 진행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 했다"며 "학생들의 호응이 대단히 좋아 많은 액수의 성금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모금한 액수는 동아리에서 모금한 것을 포함하여 1천 8백여 만원이며 지난 5월 1천 3백만원을 전국연합으로 보냈으며, 이는 적십자에서 옥수수를 구입,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전해졌다. 또한 나머지 5백여만원은 전국연합에서 대선 준비로 바빠 성금 수납을 미루어 왔으나 올해 초 30대총학생회로의 업무 이월과 함께 나머지 성금도 전국연합에 기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취재반

최현일 기자

김용운 기자

□역사의 상처, 일본군 '위안부'

아직 씻겨지지 않은 치욕의 역사

일본정부의 공식적 사죄와 국제법적 배상 선결돼야

우리에게는 일본 제국주의에 짓밟힌 치욕의 역사가 있다. 그러한 역사 속에서 생긴 우리의 상처는 반세기가 지난 지금에도 아물지 않고 있다.

우리의 상처 중에서 아직도 우리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문제가 일본 위안부문제이다.

1990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등의 민간인권단체의 발족으로 본격화된 위안부문제는 단순한 성피해자로 수치심의 그늘 속에서 숨어 지내던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사회운동 전면에 나서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역사 피해자로서 그들을 바라보게되는 국제여론을 형성하였다. 할머니들 자신에게는 운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성피해의식에서 벗어난 역사의 증언자, 역사바로잡기의 주체로서의 자부심을 갖게하였다.

이러한 우리의 움직임은 일본내 자성세력을 형성하고 국제적 여론에 의해 일본정부가 92년 7월 국가개입을 인정하게 되었으며 93년 8월 강제성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일본교과서에서도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94년부터 7개 교과서에서 일본위안부문제를 포함시키는 성과를 얻었다. 한국정부도 91년 7월 정신대실무대책반을 조직하여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하게 되었으며, 93년 5월에는 피해자들의 생활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피해자들에게 일시금 5백만원과 매월 50만원씩 지급하고, 영구임대주택에 입주권을 부여한 것도 큰 성과라고 볼수 있다.

한편 유엔인권 위원회등 국제기구들은 일본 위안부 문제는 전쟁범죄이며, 비인도적 범죄이므로 일본정부는 사죄하고 국제법적으로 배상해야한다는 권고들을 결의문으로 채택하였고 유엔의 공식문서에 일본 위안부의 비인도적 범죄성이 기록되는 등 국제적 여론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 성과만큼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배상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국내 생존자 1백30여명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매월 50만원의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생활비의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외 생존자에게는 아무런 후원조차 되고있지 않다.

또한 대부분 '위안부' 후유증으로 인해 산부인과·신장·심장·노인·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다.

더욱이 아직도 많은 수의 생존자가 일본군에게 감염된 매독균을 아직도 보균하고 있으나 변변한 의료진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육체적, 물질적 고통을 겪고 있는 할머니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일본측의 태도이다. 일본정부는 진상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으며, 사죄도, 법적 책임도 회피하고 있으며 오히려 피해자문제를 돈으로만 해결하려는 민간모금으로 생존자들의 문제제기를 덮어두려 하고 있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아직 멀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였음을 최초로 공개했던 김학순 할머니가 지난 12월16일 숙환으로 별세하였다.

평생의 한이 조금이나마 풀어지는 것을 보지도 못한채…. 우리는 수치심을 이겨내고 역사바로 세우기에 앞장섰던 그녀의 정신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다.

우리는 이 싸움을 단순한 과거사가 아닌 우리민족이 풀어야 할 현재와 미래의 과제로 보아야 하며 위안부문제에 대해 단순한 적개심에서가 아닌, 민족의 역사 바로세우기와 짓밟힌 인간의 인권회복을 위한 투쟁의 의미로 다시금 받아들여야 할것이다.

사건 그이후

□한국후꼬꾸 조합원의 기나긴 농성투쟁

일본계기업의 만행을 국민에게 알려 낼 터

명동 성당 입구에 들어서면 두 개의 천막이 자리잡고 있다. 하나는 전국 철거민 연합회의 농성 천막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 후꼬꾸 금속 연맹의 농성 천막. 한국후꼬꾸의 해고자들이 명동성당에 똬리를 튼지 벌써 1백 50여일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 문제가 해결될 조짐은 없다.

한국후꼬꾸는 일본후꼬꾸사장 가와모또가 8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일본기업으로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자동차용부품인 댐퍼풀리, 와이퍼 등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업체이다. 이 회사의 노조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회사내에 노조가 근로조건 개선 등을 회사에 요구 하자, 일본 사장 가와모또가 "돈이 얼마든지 들어도 좋으니 노조를 깨라"는 명령을 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 이후 회사측에서는 전과자들로 구성된 용역원들을 고용하여 조합원 40여명을 강당에 강금하여 5개여월동안 임금을 체불하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용역원들의 협박과 회사측의 회유로 70여명의 조합원이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 두었으며, 현재까지 10여 차례가 넘는 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 회사측에서는 노동법과 단체협약의 규정을 어기고 일용직 사원을 90여명 가까이 고용하여 기존 사원을 대신해 대체 근로를 시키기도 하였다.

이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자 지난 10월 1일 부터 18일 까지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할 말이 많다. 현재 명동 성당에서 농성 중인 이승환 편집부장은 "감사를 통해 한국후꼬꾸의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조합원들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회사측에서는 감사 기간만 일시적으로 철수시키는 등의 '눈가리고 아옹'식의 대처만을 했을 뿐이다"라며 울분을 토로했다.

문제의 해결 조짐이 보이지 않자 노동조합에서는 일본으로 원정투쟁단을 급파했다. 하지만 일본후꼬꾸는 "한국후꼬꾸에는 용역 깡패가 없다"며 "한국 문제는 한국이 알아서 하라"는 식의 답변만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지난 12월 13일 3명의 간부가 동경 중심가에 있는 동경탑 점거 농성에 돌입, 일본 경찰의 위협 속에 13시간 동안 농성을 한 뒤 현재는 일본 경찰에 연행되어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약 1백 50여일 동안의 투쟁 속에서 그들을 더욱 지치게 하는 것이 또 하나 있다. 지난 12월 22일 명동성당 사목회라는 조직에서 철수하라는 요구를 했기 때문이다. 물리적인 마찰까지 있었다고 한다.

이에 이승환 편집부장은 "성당에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나가라고 말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다"며 "사랑과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성당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 가슴이 아프다"며 고초를 토로했다.

□인터뷰 — 종군위안부 피해자 문필귀(72) 할머니를 만나

일본대사관에 울려퍼지는 한맺힌 통곡

물질 아닌 사랑과 관심의 배상 이뤄져야

"부모도 형제도 이자 모도 죽고 없어. 내옆엔 손자 하나뿐이여." "우리가 돈 땜시 이러한 쌈을 하는줄 알어? 돈 땜시 그라면 발써 왜놈들하터 돈 받았제. 누가 알어준다고 이 고상을 하것어?"

매주 수요일 12시 일본대사관 앞에서는 정신대문제 해결을 위한 시위에 참여한 할머니들의 한맺힌 통곡이 들려온다. 자신도 모르게 드는 수치심으로 인해 사람들 만나기를 꺼리는 할머니들에게 유일하게 찾아오는 일주일만의 외출, 수요정기 시위에서 그들은 일본정부의 공식사과의 국가배상을 요구하며 그동안의 시름으로 비쩍 마른 손을 흔든다. 12월로 접어들면서 더욱 매서워진 날씨도 이들의 한맺힌 절규를 멈추지는 못했다.

그러나 반성의 기미가 없는 일본의 태도와 세월이 흐를수록 사라져가는 같은 처지 할머니들의 소식을 접할때면 그들의 가슴에도 허탈감이 드는 것은 어쩔수 없는 일이다.

"얼마전에 죽은 김학순이가 참 불쌍혀. 좋은 세상 보지도 못하고 그리 갔으니 말이여…" 평소에도 유난히 외로움을 잘 느끼는 문필귀(72) 할머니는 죽은 위안부 할머니들 얘기만 나오면 눈물을 글썽인다.

조카딸이 이혼후 버린 아이를 손자삼아 키우고 있는 문할머니. 부모와 형제가 모두 죽은 할머니에게 남은 핏줄이라고는 멀리 지방에 사는 먼 친척뿐. 외로움을 유난히도 많이 느끼는 할머니지만 마땅히 찾아가 위로받을 엄두가 나지 않는다.

오류동 지하실방에서 소일거리로 근근히 살림을 꾸리며 정부의 지원결정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마다하던 그녀가 신고에 대한 용기를 낸 것은 김학순 할머니의 TV출연을 본 후였다.

"TV에 나와서 지가 겪은 일들을 야기하는 김학순이를 보니까 옛일이 생각나서 눈물이 어찌나 흐르는제, 손자가 와 우냐고 물어도 아무 말도 못하고 울었제." 신고이후 그녀는 국가지원으로 8평짜리 조그만 아파트를 임대 받을수 있었고 월 5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되어 어느정도 생활의 안정을 갖게 되었다. 지금은 손자의 대학등록금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예전에 비하면 그것은 '행복한 고민'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생활의 안정을 갖게 된 후 누구보다도 열심히 시위에 참여했던 그녀도 나이탓인지 김할머니의 죽음 탓인지 요즘은 집회가 힘겹게만 느껴진다. 아이를 갖지 못함으로 인해 평생을 외로움으로 살아온 문할머니에게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고 시위를 함께했던 동료의 죽음으로 맞이하는 새해가 그리 반갑지만은 않다. 새롭게 맞이하는 98년, 아무런 기약도 없는 인권의 항쟁 속에서 그녀는 우리 국민과 일본에 물질적 배상이 아닌 인간적 관심과 온정을 기대해 본다.

〈김용운 기자〉

KEUMKANG CHEMICAL CO.,LTD. KOREA CHEMICAL CO.,LTD. KEUMKANG CONSTRUCTION CO.,LTD.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우리는 끝없이 도전한다!

누구나 가는 길, 누구나 하는 생각으로는 미래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비인기 종목의 설움을 극복하고 당당하게 세계 정상으로 발돋움한 한국 핸드볼처럼,
40여년간 남들이 가지 않는 길, 남들이 하지 않는 생각으로 맡은 분야의 최고가 되어 온 KCC -
건축자재의 대명사인 금강, 세계적 도료 업체로 성장한 고려화학,
완벽주의로 건설의 새바람을 일으키는 금강종합건설까지
KCC는 남다른 미래 도전정신으로 아름답고 편안한 생활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주) 금강 고려화학 금강종합건설

•http://www.kccworld.co.kr